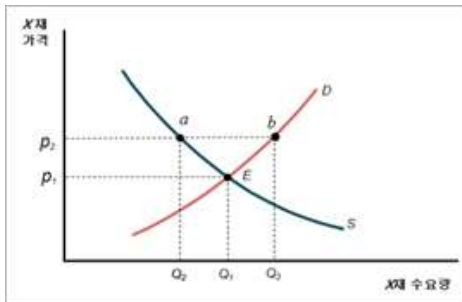


고급미시경제학

1. 신고전파 경제학이 경제학 발전에 기여한 점 : 경제분석에 수학의 최적화 기법을 도입한 점.
2. 사회현상의 탐구를 ‘과학’ 이라고 주장하려면 사회현상도 ‘자연’ 처럼 (결정론)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보편법칙)에 의해 규정된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3. 뉴턴적 세계관의 형이상학적 전제들 중 특히 과학의 탐구대상이 반증가능성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 : 유물론
4. ‘경제학은 선택의 과학이다’ : 합리적 행동가설
 - 주류경제학은 합리적 행동가설이 타당하다면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희소성에 대응할 것이고 선택의 보편적 준칙이 존재할 것이라고 보고, 합리적 선택의 준칙을 탐구하는 것이 경제학, 특히 미시경제학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계약의 자연적 자유의 관념과 법적 구속의 관념을 양립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발적 계약’ 이라고 보는 법적 관념 : 법적 개인주의
6. 시장경제에서 사람들이 가격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경제행위의 자유를 누리다는 느낌을 가지려면 가격이 (매개변수적)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가격은 이런 특성을 가지려면 시장이 (완전경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7. 시장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음이고,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양이다.
8. 다음 그림에서 D가 수요곡선이고 S가 공급곡선이다. 만약 현재 가격이 P2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가격이 상승한다.



-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양이고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음이어서 공급법칙과 수요법칙 모두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P1이 균형가격 P2보다 높지만 P2의 가격에서는 수요량 Q3이고 공급량은 Q2이므로 AB 만큼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초과수요는 언제나 가격을 상승시킨다.
9. X재 시장의 수요공급모형에서 내생변수 : X재가격, X재공급량, X재수요량
 10. 열등재의 경우 소득만이 증가하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어떻게 변하는가?
 -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도 감소한다.
 11. 수요공급모형에서 반드시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하는가? (여타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대체재 가격의 상승은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므로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소득이 감소하면 열등재인 경우에는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하겠지만, 정상재의 경우에는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12. 정부가 유류세를 인한다면 유류제품의 균형은 어떻게 변하는가? (여타 조건은 불변이라 가정한다.)
 -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13. 미시경제이론이 개별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여 시장수요함수의 수요법칙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접근방법을 따른 것인가?
 - 방법론적개인주의
 14. 사회과학에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최초로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의미있는 이론체계를 구축해 그것의 유용성을 입증한 인물은?
 - 홉스
 15. 효용극대화모형은 (예산제약식)을 만족하는 (상품묶음)들 중에서 (목적함수)인 효용함수를 극대화하는 최적화 문제로 소비자 선택문제를 정식화한다.
 16. 효용함수들 중 서수적 효용함수와 동일한 선호관계를 표현하는 효용함수는?
 - $v(x,y)=100+(xy)^2$ $v(x,y)=u\log x + \log u$ $v(x,y)=xy^2+x^2y^2$
 17. 서로 만나는 무차별곡선이 존재한다면 선호관계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가?
 - 단조성, 완전성, 반사성

서로 만나는 무차별곡선이 있게 되면 선호관계가 이행성을 갖지 못한다.
 18. 다다익선을 의미하는 단조성의 가정에서 중요한 함축은?
 - 모든 재화의 한계효용은 양이다.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음이다. 소비에 있어서 재화들 간에 대체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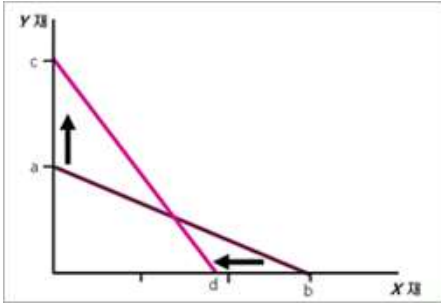
단조성의 가정은 한계대체율이 체감하는지 또는 체증하는지에 관해서 아무런 제약을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조성의 가정을 만족시키면서도 한계대체율은 체증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한계대체율 체감의 조건은 무차별곡선이 원점을 향해 볼록하다는 별도의 가정을 도입할 때 비로소 만족되는 조건이다.
 19. 무차별곡선에 대해 접선을 그었을 때 무차별곡선 전체가 반드시 아래쪽에 놓이게 되는 경우는?

- 소비의 한계대체율이 체증하는 경우

무차별곡선이 원점을 향해 오목하다면 무차별곡선에 대해 접선을 그었을 때 무차별곡선 전체가 반드시 접선 아래쪽에 높이가 된다. 그런데 소비의 한계대체율이 체증한다면 무차별곡선이 원점을 향해 오목하다.

20. 예산선이 ab에서 cd로 바뀔 수 있는 경우는?

- X재 가격은 그대로이고, Y재 가격만 하락했고, 동시에 소득이 감소한 경우



x재 가격은 그대로이고 소득이 감소하면 가로축 절편이 작아진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 덧붙여 y재 가격 또한 하락한다면 소득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세로축 절편이 커질 수 있다.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어떤 소비자의 효용극대화모형이다. MRS_{xy} 는 Y재를 표시한 X재의 한계대체율을 나타내며, MU_x 와 MU_y 는 각각 x재와 y재의 한계효용을 나타낸다. 그리고 p_x 와 p_y 는 각각 x재와 y재의 가격을 나타낸다. 끝으로 $MU_x > 0$, $MU_y > 0$ 이고 소비자가 모든 상품을 소비한다고 가정한다.]

21. 효용극대해, 즉 소비자 균형점이 반드시 만족하는 조건은?

- $MRS_{xy} = p_x / p_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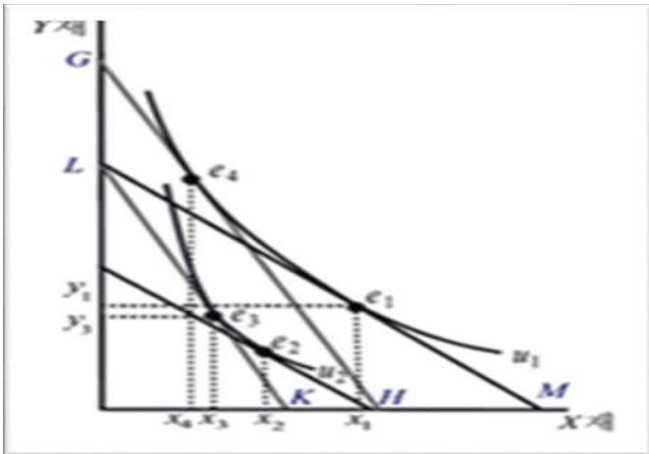
효용극대화모형이 단조성의 가정과 내부해의 가정을 만족하면 $MRS_{xy} = p_x / p_y$ 은 효용극대화의 필요조건이다. 그런데 $MU_x > 0$, $MU_y > 0$ 의 가정은 단조성의 가정과 같고, 소비자가 모든 상품을 소비한다는 가정은 내부해 가정과 같다.

22. 어떤 가정을 추가하면 위의 조건이 효용극대해의 충분조건이 되는가?

- $MU_{xy} > 0$ 가 체감한다는 가정

단조성의 가정과 내부해의 가정만으로는 $MRS_{xy} = p_x / p_y$ 의 효용극대해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 가정 이외에 MRS_{xy} 가 체감한다는 가정을 추가하면 $MRS_{xy} = p_x / p_y$ 은 효용극대해의 충분조건이기도 하다.

[다음 그림은 x재와 y재 두가지 재화만 존재하는 효용극대화모형에서 x재 가격만이 상승함에 따라 야기되는 균형 소비량 변화의 총효과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분해해 보여주는 그림이다.]



23. 대체효과로 인해 x재의 소비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 x_1, x_4 만큼 감소

X재 가격만이 상승한다면 예산선 Y축 절편은 고정된 상태에서 시계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해야 한다. 직선 LMOI LK로 변환 것이 이런 예산선의 변화를 나타낸다. 원래의 균형점 e_1 이고 가격 상승 후의 균형점은 e_3 이다. 그러므로 대체효과를 측정하려면 기울기는 LK와 같은 직선이 무차별곡선 u_1 에 접하는 점 e_4 가 그런 점이다. 이 점은 실질소득은 이전과 같고 단지 X재 가격만이 그림처럼 상승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선택하는 점이다. 따라서 e_4 에서의 X재 소비량에서 e_1 에서의 그것을 뺀 값이 대체효과를 나타낸다.

24. 소득효과로 인해 x재의 소비량은 어떻게 변화했나? 또 이런 소득효과에 비추어 보면 x재는 어떤 재화인가?

- x_4, x_3 만큼 증가했으므로 열등재

총효과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와 합이다. 그런데 X재 소비가 총효과에 의해서는 x_1, x_3 만큼만 감소했는데 대체효과에 의해서는 x_1, x_4 만큼이나 감소했으므로 소득효과에 의해서는 X재 소비가 x_4, x_3 만큼 증가했다. X재 가격이 상승해 실질소득이 줄었으나, 소득효과로 인해 X재 소비량이 오히려 이처럼 늘었으므로 X재는 열등재이다.

25. 공개법인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심각하면 이윤극대화가설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 대리인문제

26. 합리적 선택에서 전부 무시하고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 매물비용

27. 경제이윤과 회계이윤의 차이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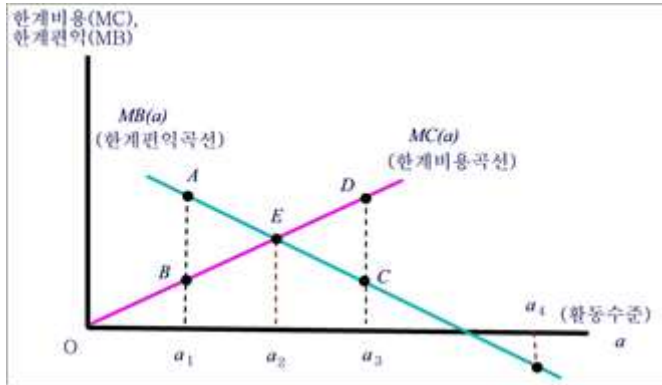
- 회계이윤은 묵시비용을 이윤으로 간주하나 경제이윤은 그렇지 않다.

회계이윤은 기회비용 중 명시비용을 이윤으로 보지 않지만, 묵시비용은 이윤으로 보는데, 경제이윤은 명시비용과 묵시비용 모두를 이윤으로 보지 않는다.

28. 이윤극대화모형의 주요 특징은?

- 이윤극대화모형은 무제약극대화모형이다. 이윤극대화 모형에서는 산출량이 선택변수이다. 이윤극대화모형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값이 이윤이다.

[어떤 생산활동의 한계편익(MB)과 한계비용(MC)을 보여주는 것이다.]



29. 활동수준이 a_1 이라면 활동수준을 한 단위 더 늘리는 경우 순편익(MB)은 어떻게 변화는가? (MNB는 한계순편익)

- $MNB > 0$ 이므로 NB는 증가한다.

한계순편익을 MNB 라면 $MNB = MB - MC$ 이다. 그런데 활동수준이 a_1 에서는 활동수준을 한 단위를 늘리는 겨우 AB만큼의 순편익이 추가로 발생한다.

30. 순편익곡선은 다음의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가?

- 오목성

한계순편익 MNB는 $MNB = MB - MC$ 이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 한계편익곡선(MB)은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고, 한계비용곡선(MC)은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으므로 한계순편익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갖는다. 따라서 순편익곡선은 오목성의 조건을 만족한다.

31. 활동수준 a 가 증가함에 따라 한계순편익 MNB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 감소한다.

한계순편익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갖는다. 따라서 활동수준 a 가 증가함에 따라 한계순편익 MNB는 감소한다.

32.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활동수준은?

- a_2

한계조건의 관점에서 본다면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조건은 활동수준의 증가에 따라 $MNB = MB - MC$ 이 체감하는 영역에서 $MC = MB$ 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활동수준이다.

33. 생산함수이론이 필요한 이유는 (이윤극대화모형)에 최적해가 존재하려면 한계비용체증의 가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생산함수)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34. 수학적 관점에서 볼때 생산함수는 어떤 점에서 효용함수와 결정적으로 다른가?

- 생산함수는 기수적 함수이다.

효용함수는 서수적 함수이고, 생산함수는 기수적 함수이다.

35. 투입물이 자본과 노동뿐일 때 분계선의 점일 수 있는 것은?

- 자본한계물 > 노동한계생산물 = 0 인점

36. 주어진 등량곡선에서 K를 L로 대체함에 따라 기술한계대체율이 체감할 때, 등량곡선이 갖는 기하학적 특성에 관한 타당한 설명은?

- 원점을 향해 볼록하다.

기술한계대체율이 체감한다면, 등량곡선은 원점을 향해 볼록한 모양을 이룬다.

37. 노동의 총생산물곡선이 처음에는 볼록하다가 나중에는 오목한 형태를 취한다면, 오목한 부분에서 노동의 평균생산물(AP)곡선과 한계생산물(MP)곡선이 갖는 특징은?

- MP곡선의 기울기는 항상 음이다.

노동의 총생산물곡선이 처음에는 볼록하다가 나중에는 오목한 형태를 취한다면, 오목한 부분에서는 MP곡선의 기울기는 항상 음이다. 그렇지만 AP곡선의 기울기는 얼마간은 양이다가 음으로 바뀐다. 따라서 얼마간은 $AP < MP$ 이다가 나중에는 $AP > MP$ 가 된다.

38. 단기생산의 2단계가 갖는 특징에 관한 타당한 설명은?

- 한계생산물이 음이다.

총생산물곡선에서 2단계 부분을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관찰된다. 하나는 곡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점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기는 하지만 아직 음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2단계에서는 평균생산물곡선의 기울기와 한계생산물곡선의 기울기 모두가 음이다.

39. 개별 기업의 장기 최적 생산규모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생산함수의 성질은 (생산규모)의 총산출량곡선이 처음에는 (볼록)하다가 나중에는 (오목)하다는 것이다.

40. $w/r = MRTS_{Lx}$ 의 조건이 비용극소해의 충분조건이다 라는 의미의 명제는?

- 비용극소해가 아닌 투입물조합에서는 $w/r = MRTS_{Lx}$ 일 수 없다.

[비용극소화모형에 관한 문제이다. 모든 기호의 의미는 교재와 같고, 모든 요소시장은 완전경쟁적이라고 가정한다. 목적 $\min L < K$ 제약조건 $Q=f(L < K)$]

41.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는?

- L, K는 내생변수이고, w, r, Q는 외생변수이다.

42. 비용함수를 이끌어 내려면 어떤 비교정태분석이 필요한가?

- 변수 Q가 변할 때 변수 L과 K의 최적 값이 바뀌는 양상에 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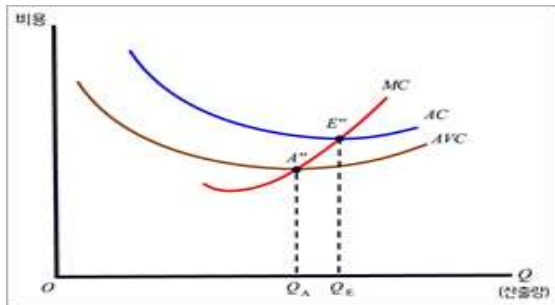
비용함수가 산출량 Q에서 갖는 함수값은 L과 K의 최적 값, 즉 비용극소해인 균형점에서 변수 L과 K이 갖는 값에 각각의 투입물가격을 곱해 합한 값과 같아야 한다. 따라서 투입물가격은 그대로 두고 단지 산출량 Q를 변화시킬 때 달라지는 L과 K의 최적 값을 추적하는 비교정태분석을 통해 비용함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43. 생산요소가 자본과 노동뿐인 생산함수가 수확체감의 법칙을 만족한다면 단기가변비용곡선은 어떤 형태를 이루어야 하나? (생산요소시장은 완전경쟁적이라고 가정한다.)

- 변곡점을 경계로 오목하다가 볼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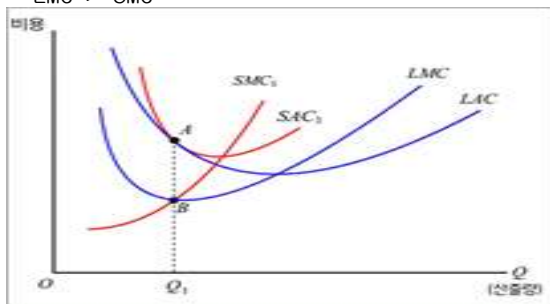
44. 단기가변비용함수가 표준적인 가정을 만족한다면, 단기한계비용곡선(MC), 단기평균가변비용곡선(AVC), 단기평균총비용곡선(AC)에 관한 설명은?

- MC는 AVC의 최소점, AC의 최소점 모두와 만난다.



45. 생산요소가 자본과 노동뿐이고, 장기와 단기의 생산비용함수가 모두 표준적인 가정을 만족한다고 하자. 단기확장경로와 장기확장경로가 만나는 점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량보다 작은 산출량에서는 장기한계비용(LMC)과 단기한계비용(SMC)이 어떻게 하나?

- $LMC > SMC$



단기확장경로와 장기확장경로가 만나는 점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량을 Q_1 이라 하면 Q_1 에서는 장기와 단기의 평균비용이 서로 같다. 그런데 그림에서처럼 단기한계비용곡선은 Q_1 에서 장기한계비용곡선과 만나되, 장기한계비용곡선을 밑에서 위로 뚫고 지나간다. 따라서 단기확장경로와 장기확장경로가 만나는 점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량에서는 LMC가 SMC보다 커야 한다.

46. 시장경제에서 경쟁이 수행하는 경제·사회적 기능에 관한 설명은?

- 경쟁은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경쟁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실천적 수단이다. 경쟁은 자원을 능력 본위로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7. 수요공급모형에서 공급자가 가격수용자로서 행동한다고 가정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 자원의 이동가능성이 완전하다. 구매자와 판매자의 수가 아주 많다. 완전한 정보가 무비용으로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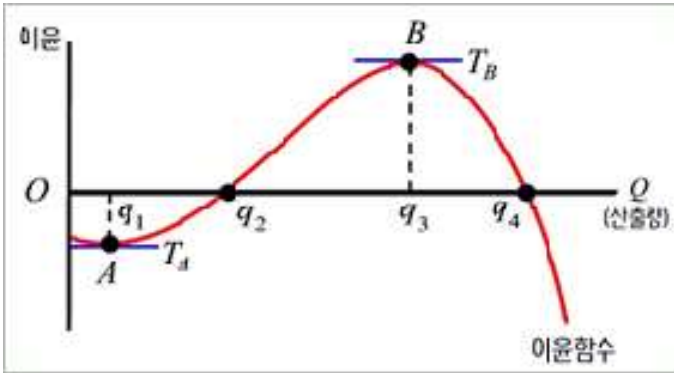
48. 시장이 완전경쟁적이라면 개별기업의 한계수입(MR), 평균수입(AR), 시장가격(P)은 어떤 관계를 갖는가?

- $MR = AR = P$

49. 시장기, 단기, 장기 중에서 가격이 배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 단기와 장기

[다음은 완전경쟁기업의 이윤함수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TA와 TB는 이윤함수에 대해 A점과 B점에서 그른 접선의 기울기인데 가로축과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p는 시장가격, MB는 한계수입, MC는 한계비용)



50. 산출량 q1과 q3의 근방에서 총비용곡선의 형태는 어떠한가?

- q1 근방에서는 오목하고, q3 근방에서는 볼록하다.

51. 산출량이 q4일때, p, MB, MC의 관계는 어떠한가?

- $p = MR < MC$

52. p는 가격이고 MC는 단기한계비용이며 q는 기업 산출량일 때, 단기에서 이윤극대화 필요조건 $p=MC$ 를 q에 관해 풀어 기업공급함수를 이끌어 낼 수 있고 기업공급함수가 공급법칙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 한계비용 체증하는 조건

53. 기업공급함수를 구할 수 있고, 그렇게 구한 공급함수 역시 q의 단조증가함수이므로 공급법칙을 만족한다.

- 장기에서는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소점, 단기에서는 단기평균가변비용곡선의 최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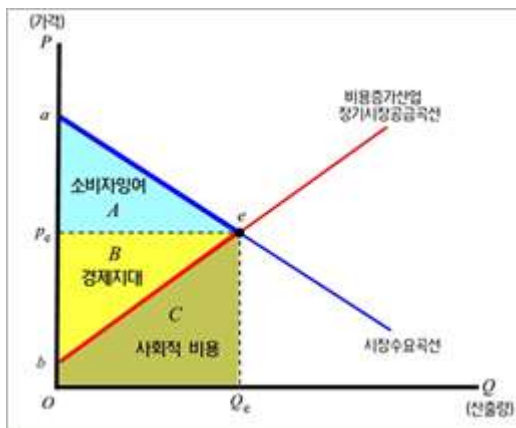
54. 기업들의 비용구조가 모두 같은 산업의 장기수요공급모형에서 시장수요가 증가한다면 경쟁균형에서 개별 기업이 얻는 이윤은 어떻게 변하나?

- 제로에서 제로로

55. 어떤 경우에 경쟁균형에서 극대화된 사회적 순편익의 일부를 생산자가 생산자잉여로 향유할 수 있나?

- 수입이 가변비용보다 큰 단기에서

생산자잉여는 단기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56. 산업특수투입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기경쟁균형에서 극대화되는 사회순편익은 무엇인가?

-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한 값